

2016. 5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6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인원 수		비고
		위원	방송사	
2016.5.31	대전MBC 대회의실	9/10	6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강은혜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김미리 편성
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최종명 방송기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3	5	-	2	10		10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9	1	-	10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0건	10건	4월 5월
보도	야구관련(한화이글스) 뉴스 강화	뉴스투데이(아침뉴스)매주 월 고정코너 정례화 방송	4월
보도	여성앵커가 진행하는 코너에서 들고 있는 뉴스메모판 커서 부담스럽다	뉴스메모판 크기를 줄임	4월
보도	총선관련 토론 프로그램 다양하게 방송 편성	4.13 총선 무엇을 남겼나(4/17), 초선의원에게 듣는다(4/24), 4.13 총선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5/1) 등 제작 편성	4월
교양	건강프로그램 다양한 치료방법과 어려운 의학용어 이해하기 쉽게 전달 필요(2건)	녹내장(5/7), 탁관절장애(5/14), 수면장애(5/21), 발목염좌(5/28) 등 치료방법 다양하게, 의학용어 알기 쉽도록 전달	5월
기타	시청자위원회 과학기술계 대표성 있는 분 선정 필요	지역 과학기술계 대표성 지닌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선정	5월
기타	홍보매체 M- STORY 지속적 발간	M- STORY 휴간 없이 지속적 발간	5월
교양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2건)	토크프로그램 '아빠시인 서효인(5/8)', 시사프로그램 '세종시민의 손길로 가꿔가는 세종호수공원'(5/26) 정보프로그램 '지역이 더불어 잘사는 꿈 협동조합'(5/12) 등 프로그램에서 소개	5월
보도	지역의 이슈를 찾고 기획보도와 심층취재로 타 방송사와 차별화를	썩은 밀가루 유통 파문(4월 연속보도), 대신학원 교사채용 비리(5월 연속보도) 등 단독보도와 심층취재	4월 5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6. 5. 31. ~ 2017.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정민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과학기술단체	신임
위원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관련단체	연임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연임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연임
위원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재)청소년과 사람사랑충남지회	청소년단체	신임
위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연구실장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과학기술단체	신임
위원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단체	신임
위원	박정훈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신임
위원	신종성	골프존 네트워크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신임
위원	강은혜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신임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5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허참의 토크 앤 조이에서 드론 연구 1세대 심현철 교수(5월 20일)편이 방송되었다. 무인자동차, 드론 등을 연구해 온 심현철 교수와 함께 드론에 대한 전반적 소개가 주요 내용을 이루는 프로그램으로 카이스트에서 촬영된 점이 좋았다.</p> <p>전체적으로 인물에 대한 소개와 드론에 대한 폭넓은 정보, 나아가 무인기나 무인자동차 등 관련 기기에 대한 접근까지 적절히 다루어진 것으로 보였다.</p> <p>다만, 안전성 등 드론이 극복해야 하는 여러 문제점의 해결방법이라든가, 우리나라가 드론 시장에 임하는 전략 등은 가볍게 다루는 선에서 그쳤는데 조금 더 심화된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성정모).</p>	<p>우리나라 드론 연구 1세대이자 국내 무인기 연구 권위자인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심현철 교수를 초대 손님으로 모셨다. 그는 1990년대 초반, 독자적으로 드론 연구를 시작해 다양한 기능의 드론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무인자동차와 로봇 조종 무인기를 만드는 등 국내 무인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해왔는데 이런 부분을 방송에서 소개하였다. 지적한 부분은 방송제작에 반영하여 앞으로 보다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p>	○		
교양	<p>세프 포함 두 남자가 떠나는 요리여행(테마기행 길 5월 27일)이란 주제는 드문 것은 아니지만 직접 여행을 떠나는 듯 현실감을 전달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보였다.</p> <p>해변가 월포 마을에서 벌어진 마늘쫑 뽑기 대회에서는 마늘쫑 뽑는 도구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았고, 이어서 세프가 직접 흑마늘을 이용해 닭 떡갈비를 만드는 과정이나 마을 아주머니가 닭백숙을 만드는 과정(마늘, 약초를 넣고 대나무로 묶음)을 소개한 것도 흥미로웠다. 일종의 요리대결처럼 진행되었는데 재미있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정이나 개연성은 좀 부족했다고 본다.</p> <p>이후 독일마을을 거쳐 밤낚시가 진행되었는데 역시 메뉴는 마늘쫑과 빨락회였다. 이후 마늘쫑 묶는 일을 같이 하는 장면과 몇몇 명소나 경관의 소개를 거쳐 어선에서 멸치 그물을 터는 과정이 소개되었고 두 남자가 만든 마늘쫑 바지락전과 멸치튀김이 무척 먹음직스러워 보였다.</p> <p>전체적으로 부담없이 내용을 즐길 수 있었고, 5-6월 경 남해의 풍경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좋았다(성정모).</p>	<p>5월 27일 방영된 테마기행 '길'은 울산 MBC가 제작하여 지역MBC 네트워크로 방송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테마를 정하여 그 지역의 명소와 사람, 풍경 등을 소개하고 있다. 시체에 맞추어 이 때 아니면 맞보기 어려운 것들을 모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번 방송된 남해 국방 여행은 이런 점을 놓치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프로그램 안에서 펼쳐지는 요리대결 같은 내용은 시청자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 하도록 하겠다.</p>	○		
교양	<p><백제 세계를 품다 1부 역사가 돈이다(5월 30일)>는 백제 유적지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으로 다른 국가의 세계유산 운영실태를 파악해 백제 유적지가 세계유산으로 나</p>	<p>특집 다큐멘터리는 방송일자에 앞서 지역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배포한다. 예고PR도 제작해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시청할 수 있도록 나름 노력</p>	○		

	<p>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였다.</p> <p>이런 기획 프로그램이 방영될 경우 홈페이지 상단에 프로그램을 알리는 내용이 보여지기는 하나 그 곳을 클릭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 기획의도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었다.</p> <p>M-STORY 제54호에 들어가서야 메인 테마로 이 다큐멘타리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본방을 사수하지 않은 시청자들 중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흥미를 갖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 시청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하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성정모).</p>	<p>을 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백제 세계를 품다>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보존관리와 더불어 관광자원화라는 현실적 과제를 고민해보고자 2부작으로 제작된 특집 다큐멘터리이다.</p> <p>1부는 <역사가 돈이다> 2부는 <세계유산을 경영하라>는 타이틀로 방영되었다. 예고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p> <p>앞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지적인 것처럼 프로그램 기획의도 등의 내용을 같이 올려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다.</p>			
기타	<p>대전MBC 홈페이지의 사이버 홍보실은 홍보 비디오, 사이버 견학실, 방송가 사람들, 프로그램 속으로, 보도자료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p> <p>그런데 이 사이버 홍보실은 , 지난해 대전 MBC weekly ' m- story' (2015. 5. 22) 창간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먼저, '프로그램 속으로'를 들여다보면 게시물이 2014년까지는 제법 활발하게 올라와있음을 볼 수 있는데, 지난해는 단 6건이 게시됐을 뿐이고 그나마 2015. 3. 31 “무한도전, 그 감동의 순간들, 프레임에 담다” 이후로 올 들어 현재까지 게시물이 전혀 없어서 보는 이들이 의아함을 느낀다.</p> <p>한때는 만만치 않은 조회 수를 기록했던 코너였는데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 아쉽다. 그나마 '보도자료' 코너는, 비교적 활발하게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 코너도 올해 3월11일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듣다” 이후로는 지금까지 추가 게시물이 없다. 소재가 마땅치 않은 것인지, 아니면 관리자의 바쁜 일상 탓인지, 사이버 홍보실을 방문하는 시청취자들은 속사정을 알 수 없다.</p> <p>또 하나의 코너 '방송가 사람들' 역시 지난해 5월12일 <콘텐츠 발전기, MBC 상암신사옥 1> 을 끝으로 더 이상의 게시물은 없다. 사이버 홍보실이 이렇듯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제 50호를 넘긴 '대전MBC weekly 'm- story' '와 무관하지 않은 듯싶다.</p> <p>'m- story' 제작에 다수의 인원이 투입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이버 홍보실의 관리에 소</p>	<p>대전MBC 홈페이지의 사이버 홍보실의 “방송가 사람들, 프로그램 속으로” 카테고리에는 대전MBC 블로그 “M- STORY”안에 있는 MBCian과 tv코너로 이관되어 사용하고 있다. ‘ 기존 홈페이지의 “방송가 사람들, 프로그램 속으로” 카테고리는 M- STORY와 중복되어 정리하였다.</p>	○		

	<p>홍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 이제는 사이버 홍보실의 운영에 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김학선).</p>				
<p>보도</p>	<p>요즘 국회 상임 위원회의 청문회 개최 요 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 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논란이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청문회나 국정 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질의 할 때나 각 부처 관계자들이 답변을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 가 ‘전향적’ 이라는 말이다. ‘전향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전향적’ 이라는 말은 ‘마에무키’ 라는 발 음의 일본식 한자에서 온 말이다. ‘전향적’ 이라는 말은 우리말의 ‘적극적’ , 혹은 ‘진취적’ 이란 말과 동일한 의미를 지 니고 있다. tip : 증권가에서 나도는 말 ‘찌라시’. 이 또한 , 광고지를 뜻하는 일본어 단어. 이와 같은 선전용 쪽지는 ‘ 광고지’나 ‘선 전지’ 또는 ‘광고 쪽지’와 같은 표현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김학선).</p>	<p>보도 기사 작성 시 일본식 표현이 사용 되지 않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p>			
<p>보도</p>	<p>청소년 관련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 다. 이를테면 청소년 약물중독의 경우 대 다수 일반 청소년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하 는데 일부 매체에서는 청소년 약물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어떻게 약물을 알고 접 하는지 안내하는 듯한 기사를 제공하기도 한다.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자살, 인터넷 중독, 왕따’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많은 것이 현 실이다. 청소년 문제는 거시적으로 살펴보 는 것이 중요하다(정철상).</p>	<p>청소년 관련 보도 시, 비행을 고지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p>			
<p>보도</p>	<p>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대전MBC 선호도를 알아보았는데 그다지 좋은 점수를 주지 않 았다. 뉴스에 대한 접근을 다방면으로 확 대했으면 한다. 최근에 대전MBC에서 신송산업의 썬은 밀 가루, 학교법인 대신학원 교사 선발 비리 등 굴직한 핫 이슈의 뉴스를 연이어 터뜨 렸는데 모바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요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장년층도 SNS 활용도가 높다. 뉴스노출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박 정훈).</p>	<p>대전MBC 보도국 자체적으로 SNS뉴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 해 노력하겠다.</p>			
<p>기타</p>	<p>지역MBC는 본사인 MBC의 경영과 편성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 6년 동안 지역MBC의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본다.</p>	<p>본사와 지역사간 광고 매출을 위한 논의 의 중심에 대전MBC가 나름 역할을 하 고 있다. 지난 2년간 CM순서지정판매광</p>			

	<p>실제 지닌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p> <p>대전MBC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 선전하였다. 앞으로 대전MBC 역량이 더욱 발휘되었으면 한다.</p> <p>프로그램 제작에 투입하는 제작인력이 어떠한지를 보면 현재 대전MBC의 노동강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다. 시청자위원회에 관련 지표를 공개할 수 있는가?</p> <p>서울 본사와의 광고배분 협상은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청자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이승선).</p>	<p>그와 간접광고의 전파료 배분을 위한 노력의 결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권고로 본사와 관련 TF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대전MBC가 지역사를 대표해서 참여하게 됐다. 대전MBC는 시장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광고 배분 구조를 해결하기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TV 전파료, 2014년 라디오 전파료를 타 지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폭 인상됐으며 2016년엔 7월 1일자 라디오 토막광고요금을 20% 인상하는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대전MBC 광고수입은 지역인구와 경제력지수에 비해 아직도 많이 낮은 편이다. 과거 KOBACO 체제에서 잘못 만들어진 요금 구조 탓이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광고요금체계가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 시청자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광고 자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p> <p>제작관련 인력을 살펴보면(2015.12.기준) 방송기자 24명, PD 15명, 아나운서 4명(여 아나운서 2명 포함), 카메라, CG 등 제작인력은 8명이다. 기술직은 15명이다.</p>		
<p>교양</p>	<p>시사플러스 [이런 학교 또 있을까?] 편(5월12일)은 짧은 분량이었지만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하는 학교,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천안 업성 고등학교가 소개되었다.</p> <p>빨강머리 노랑머리도 다 좋다는 학교, 수업시작 종이 가요로 나오는 학교, 매주 금요일은 패밀리 데이로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학교로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주인공인, 학교 분위기 조성으로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 그 결과 자율학습의 질이 높아지고 다양한 체험과 동아리 활동으로 자기적성에 맞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 도내 명문고로 발돋움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었다.</p> <p>위의 그러한 사례는 아직까진 우리 교육기관이나 학교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례이지만, 학생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학생이 중심이 되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가 되어갈 때 학생들도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고 오히려 자기계발에 더욱 노력하게 된다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p> <p>과거 우리는 1980년대 초 두발자율화 및 교복자율화를 시행하였다. 그 당시에는 그러한 조치가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조치였지만, 그렇게 하였다고 학생들의 학습이</p>	<p>천안 시내와 8km 가량 떨어진 천안 업성고. 거리 때문에 학생들은 이 학교의 진학을 꺼려했다. 그런데 2014년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p> <p>수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것은 가요. 게다가 수업은 일자형이 아닌 토론식 수업. 매주 금요일은 가족들과 저녁 먹는 패밀리데이. 두발 자유화에 9시 등교제까지, 뭐하나 특별하지 않은 게 없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알찬 꿈이 영어어가는 천안 업성고.</p> <p>업성고는 2008년 3월 개교한 천안 유일의 자율형 공립고로 진로 적성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 진로와 연계된 각종 동아리 활동,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체육예술분야 선도학교로 자리를 잡았다. 천안 지역 다른 고등학교가 학급당 38명인데 비해 업성고는 28명이다. 소모둠 맞춤형 수업을 하고 있고 행복나눔학교에 선정돼 수업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p> <p>다양한 체험과 동아리 활동으로 자기적성에 맞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 업성고는 금요일만큼은 오후 5시면 학교가 텅 빈다. 금요일은 '웨이틀리 데이'다. 아이들이 가족과 대화하고 식사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p>	<p>○</p>	

	<p>저하되거나 탈선이 확대되진 않았다. 오히려 학생들의 자유와 창의성을 키워 주었다고 본다.</p> <p>최근의 사례로도 오전 9시 등교제가 논쟁이 있었지만 오히려 9시 등교제 시행 후 학생들의 수면시간과 아침 먹는 횟수가 증가하여 학생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다고 한다.</p> <p>이번 시사플러스에서 소개한 천안 업성고등학교가 도내 다른 학교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그 어느 곳 보다도 경직된 교직사회에 이번 방송은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선생님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고 본다(장백기).</p>	<p>교사들은 연수를 한다.</p> <p>입시로 인해 대학진학을 코앞에 둔 고등학교는 대체적으로 진학 이외에는 별다른 신경을 못쓰고 있는 형편이다.</p> <p>시사플러스가 천안 업성고를 소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함이다.</p>		
교양	<p>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 청년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갈수록 청년 실업은 증가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지만 증가하고 있는 청년실업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종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관련 제도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p> <p>이번 시사플러스<[일자리 창출 해법, 청년 창업이 대안?] 편 5월 12일>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일자리 구직난속에 그 대안으로 창업에 나서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p> <p>그리고 구직난의 돌파구로 정확한 시장조사나 경쟁력 분석없이 성급하게 창업에 나서게 될 때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창업에 나서게 되는 청년들에게 기존 청년 창업자들의 사례와 소개를 통해 창업을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사전 정보를 잘 알려 주었다고 본다. 특히나 구직난의 돌파구로 창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 전달은 적절하였다고 본다.</p> <p>지난 2015년 9월 18일, 시사플러스에서는 ‘경쟁과 횡포에 시름하는 자영업자’ 편을 다룬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시사플러스에서는 과당경쟁 속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실태와 그 원인을 살펴보았으며, 자영업자의 처해진 현실과 무분별한 생계형 신규 창업에 대한 위험성과 경종을 울려준 적이 있었다.</p> <p>청년창업도 결국 자영업자이다. 기존 자</p>	<p>올해 2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 명으로 전체 청년의 12.5%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p> <p>잠재적 실업자까지 더하면 사실상 청년 실업자는 100만 명. 따라서 실업난에 지친 젊은이들은 취업 대신 창업에 나서고 있는데, 지난해 30세 미만 청년이 설립한 신규법인은 약 5천 곳으로 전년 대비 28.3%나 증가할 정도로 청년 창업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p> <p>그만큼 각계의 청년 창업지원에 힘입어 전통시장, 휴게소, 철도역사 등지에 청년 점포가 속속 문을 열고 있으며, 자신만의 꿈과 성공을 위해 나홀로 청년 창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p> <p>그러나 1년 뒤 청년점포 절반이 문을 닫고 5년 후 생존율은 16.6%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창업이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사플러스>는 왜 청년들이 창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청년 창업의 현주소와 대책을 이야기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p>	○	

<p>영업자와의 경쟁 속에 숙련된 기술이나 노하우, 차별화된 전략 없이는 기존 자영업자와 덩달아 영세해지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여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것이다.</p> <p>시사플러스에서 작년에 다룬 ‘경쟁과 황포에 시름하는 자영업자’에 이어, 금번에 다룬 ‘일자리 창출 해법, 청년 창업이 대안?’ 인가는 구직난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취업과 창업의 사이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준비하여, 자신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장백기).</p>				
---	--	--	--	--